

하나로 선 사상과 문학, 수상식 가져

대상 허이레 시인·강소이 수필가 수상... 신인상 16명 등단

하나로 선 사상과 문학 2020년도 문학상(대상) 수상 및 신인상 수상식이 지난 11월 11일(목)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소재 유니케이 라디오 및 TV광고홀에서 열려 한국문학의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고 문학동지 선후배 간 사랑의 교체를 나누는 등 한국문학의 발전을 위해 한바탕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수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은 허이레 시인의 '생각을 담아내는 향기, 강소이 수필가의 '독립운동가-숨을 만나다(1,2권)' 라는 작품으로 각각 받았다.

시부분 신인상으로는 주정현·노만섬·유의·조준현·김태원·오봉환·이병근·정명자·류유하·고병호 씨가, 조지열 씨가 동시 부문으로 각각 등단했다. 그밖에 수필부문으로는 정요세·김지영·권길홍·정정욱·신영구 씨가 각각 수상해 신인으로 등단했다.

이날 행사는 윤윤근 시인의 사회로 발행인 박영를 박사의 인사 및 소개, 평론가 김봉근 박사의 인사말, 심사위원장 유승우 박사의 심사말, 시상 및 등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박영를 박사는 "지난 한해는 작가 개인의 체력과 생각에 사람들과의 위한 치유의 요소가 작품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문학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함축적 예술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삶이 험악해질 때 문학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된다"고 전한 뒤 이 아름다운 일을 위해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계속해서 시인 김영백 박사·작가회 총무 정지홍 시인·세계시문학회 명예회장 오진환 시인은 격려사와 축사로서 등단자들을 축하했으며 주정현 시인이 수상자 대표로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강남구 방송인의 축사와 작가회 총무 김민정 시인의 광고에 이어 윤윤근 시인의 폐회 선언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작가 등용문인 하나로 선 사상과 문학은 한국문단은 물론 세계문단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참신하고 역량있는 작가들이 마음껏 문학의 나라를 펼칠 수 있게 하고자 창간했다. 그동안 1백60여 명이 넘는 역량을 갖춘 문학인들이 사상과 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GS건설(주), 업무협약

발달장애인 미술전의 성공적 개최 목적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중앙회(이사장 최경열, 이하 국협)는 최근 GS건설(주) 대표이사 임병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 소속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미술전 개최를 목적으로 한다.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는 국협에서 운

영하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전문 예술인 양성과 문화예술 저변확대,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 29개소 지역학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매해 500여 명의 교육생이 문화예술분야의 교육을 지원받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국협과 GS건설(주)는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그랑서울 1층 로비에

서 공동주최로 전시를 개최한다. 국협은 전시를 주관하며, GS건설(주)은 전시 장소 제공 등 전시 및 창작지원을 할 계획이다.

본 전시는 발달장애인의 세계관과 작품의 지력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및 발달장애인 미술작가로서의 성취감 제고를 목적으로 개최한다.

월드비전, 토브 정주는대표 '밥피어스아너 클럽' 회원 위촉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영환)이 토브(TOVB) 정주는 대표를 밥피어스아너 클럽 회원으로 최근 위촉했다.

토브 정주는 대표는 2017년부터 아프리카 에스와티니 지역 '마일돌봄센터' 건축 후원금으로 총 2억 5천만원을 기부하며 고아들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에스와티니 마일돌봄센터는 보호자의 돌봄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하며 마을 구성원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밖에 정주는 대표는 나눔 프로젝트 '체인지더월드' MC로 참여하며 재능을 기부한 데 이어 2019년에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방문, 해외 취약계층 아동들과 직접 만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정주는 대표가 운영하는 기병 브랜드 토브(TOVB)는 히브리어로 '좋은, 선한, 아름다운 일, 완벽한'이란 뜻을 지녔다.

브랜드명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후원하며, 고개파도 이러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토브 정주는 대표는 "아이들을 섬기며 살아야겠다는 사명을 행동에 옮기고 있을 뿐인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격을 주셔서 감사하고, 뜻깊다"며 "깨끗한 센터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삶에 커다란 기쁨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전해 더 많은 아이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월드비전 조영환 회장은 "가장 취약한 아동들을 위해 월드비전에 선한 영향력을 전해주고 계신 정주는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정주는 대표님을 비롯해 밥피어스아너 클럽 회원분들이 전해주시는 후원금과 마음이 지구 반대편 아이들에게도 전해져 가장

필요한 곳에 후원금이 사용되도록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진행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밥피어스아너 클럽(Bop Pierce Honor Club)은 월드비전 창립자인 미국인 선교사 밥피어스의 이름을 딴 고액 후원자 모임으로, 1억원 이상 기부 후원자에게 정식 회원으로 위촉하고 후원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활발한 기부 문화 정착을 독려하는 기부 모임이다.

신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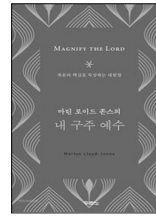
시험에 관하여



시험을 치는 원동력은 사랑이다. 그 사랑은 은혜를 통해 주어진다. 사랑 없이 시험을 칠 수 없고, 은혜 없이 고통을 이길 수 없다. 시험을 당할 때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이유다. 시험으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이 무엇입니까? 단지 힘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험의 때에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 바로 하나님 사상이다. 그 사랑에서 미끄러지지 않기를 갈망하라. 시험과 시험 속에서 고통보다 더 큰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시험 중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시 77:7-9). 그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거룩한 갈망의 증거다(시 144:2).

저자 : 김남준 | 출판사 : 생명역말씀사
발행일 : 2021-11-17 | (142*204)mm 240p | 판매가 : 15,000원

마틴 로이드 존스의 내 구주 예수



1959년 12월 런던 웨스트민스터채플 주일 예배 강단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복음의 정수가 살아 숨 쉬는 이 피리야의 찬가(누기복음 1장 46-55절)를 자세하게 풀어 소개하면서, 우리를 인생의 유일한 구주 예수께로 초대한다. 거듭남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쏟아부으신다. 암울한 현실에 눌려 찬송을 잃어버린 시대, 구원자를 고대하는 이들을 향한 한 힘 있는 격려와 능력의 메시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점검하고, 세상 휴일(서양 명절)로 전락한 성탄절의 참의미와 정신을 회복한다. 아쉬운 연말 연시, 예수님께로 마음을 집중하고 싶은 이들에게!

저자/역자 : 마틴 로이드 존스 (D. Martyn Lloyd-Jones)/홍종락 | 출판사 : 도서출판 두란노
발행일 : 2021-11-17 | (112*180)mm 184p | 판매가 : 10,000원

수수께끼 같던 영혼몸의 비밀이 풀린다



하나님께서 1999년 성령 체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하신 다음 2005년부터 하나님나라에 대하여 공부하고 알리게 하셨다. 그때부터 내 심경에는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게 새로운 기쁨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모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나라의 복음에 기초하여 새롭게 보는 것이었다. 비로소 세상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나라의 사고방식(kingdom mentality)을 가지게 된 것이다. 성경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에 비추어 통전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저자 : 손기철 | 출판사 : 규장
발행일 : 2021-11-15 | (145*210)mm 336p | 판매가 : 18,000원

길을 찾는 친구에게



인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해결점까지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이 필요하다. 해답은 하나이지만 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성경에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도 하셨고, 준비하신 사람들을 보내어 제시해 주시기도 하셨다. 예수께서는 다양한 인생의 문제를 가진 자들을 만나주셨고 가르침과 치유의 기적, 그리고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 그렇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궁극적인 해답이다.

저자 : 하도근 | 출판사 : 도서출판 소망사
발행일 : 2021-11-18 | (145*210)mm 264p | 판매가 : 16,000원

5면에서 이어짐

이러한 고착된 상황 하에서 미중 양국 간 서로의 의식은 상대방 군사적 책략과 방어 프로그램에 의해 강해지고 있다. 이는 한 국가가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당연하고 정상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양측 간의 최악의 시나리오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중국이 국력과 군사력이 팽창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G1이 되려는 야욕을 보임으로써 여타 국가들은 과거 냉전체제에서의 소련보다 더 위협한 공산정권이라는 판단을 받고 있는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쿼트 체제'가 출범할 것이다. 이러한 전후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국익을 위해 어떤 선택과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 미중 대립 구도가 쉽게 완화되기에 어려운 국면이다.

그런데 한미동맹이라는 우리의 외교적 기본 틀을 바꾸려 한다면 이는 국가존립의 위헌까지 부딪히게 될 것이다. 더욱 시급한 과제인 북한의 핵과 관련된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19세기 비스마르크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강자의 망설임 때문에 강자가 약해지고, 약자의 대담함 때문에 약자가 강해

지는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 말을 실감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만의 원칙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그들 스스로 주장하는 공산주의 원칙도 그들의 통치 원칙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몇 개의 핵폭탄을 만든 것을 주요업적으로 내세우며 국제적 망신에 이랑곳하지 않고 영동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미국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북한은 미국과 전쟁을 벌일 군사적 능력도 없다.'

그러나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무기가 지닌 군사적 효용성을 크게 능가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핵무기 보유로 대대적인 평양이 자신의 능력과 어울리지 않는 모험을 감행한다면, 한반도에 또 한 차례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높아진다. 고 진단했다. 우리는 키신저의 분석을 다시 음미하지 않을 수 없다. 미중 모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를 포기하면 정치적으로 붕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길은 일방적인 양보나 신임을 쓰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다라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한미동맹의 틀을 더욱 강력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쿼트 플러스 일원으로 대북, 대중국 압박을 통해 동북아 평화 유지를 위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6. 보편 국제질서가 흔들리는 현 시점에서 자국민 보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한미동맹 강화와 쿼트 플러스에 참여해야 한다.

동북아지역 안보 문제는 남북한 또는 중국을 포함한 일본, 러시아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오늘날 보편적 세계 질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행위동기를 먼저 검토한 후 현재의 각종 국가 간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정당성과 힘의 균형이란 틀 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국가별 대화의 문이 21세기의 위기를 넘어서는 데 필요한 힘을 이룰만한 유일한 방법임을 무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각국이 자국 이익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서로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있다는 데 있다. 대립은 불복을 만들게 되고 결국은 통제가 되지 않는 가운데 서로가 우려와 걱정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내외적 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 현실주의 외교정책의 열쇠를 만들어 내야 한다. 새로운 환경과 변화의 중심에는 국민들뿐 아니라 국가에도 견훤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갈등 해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보편적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국가안보를 튼튼히 세우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그에 걸맞는 쿼트 플러스에 동참하는 것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한국에 대해 일방적 압박이 아닌 대등한 외교적 자세로 임해줄 것이다.

7. 대한민국은 구한말 망국적인 친청시대주의정책에서 벗어나 쿼트보동맹에 들어야 한다.

일본 기사다. 정권은 미국의 나토국가 방위비(GDP 대비 2%) 증강 요구에 따라 방위비 증강 정책으로 490억 달러 책정은 1천억 달러 미국, 중국에 이어 3위 군사력을 확보할 것이다.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70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우방국가이다. 일본은 쿼트 동맹에 들어와 있다. 일본과의 관계를 주창부대 언어로 관계 훼손을 해서는 안된다. 중국은 시진핑 3연임 전제주의로 나가면서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며 위협하면서 일본 국민 88%가 중국을 위협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한국은 구한말 청나라 시대주의 고립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구한말 한국은 외교 고립에서 가스파르-대프트 밀약에 근거한 일본에 국권을 잃었다. 한국은 쿼트안보 참여해 안보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정책이 참여해야 한다. 통일독일이 나토라는 다자 동맹 틀 안에서 허락되었듯이 한국도 쿼트동맹에 들어가 새 동북아 안보상황 속에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2021년 11월 9일
실문을 공유는 나비행동